

4장. '자기학'으로서의 '생명철학'과 동서문화론: 양수명(梁漱溟)

발제: 송인재

1. '생명'과 생활문화로서의 '자기학'

- 시대적 경험에 대한 자기 나름의 반성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성숙시킴
- 「중서 학술의 차이」에서 주요 사상의 특징 제시
 - 내 사상의 근본 관념은 생명과 자연. 자연을 중시하고 인위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은 입장. 이 길은 중국적인 길. 유가와 도가 모두 생명을 근원으로 함. 사서(논어, 중용, 맹자)의 말들은 생명 자연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
 - 한때 불교에 진력하다 유가로 전향. 유가에는 나를 계발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명나라 유학자 왕심재(王心齋=왕간(王艮), 1483~1541)의 자연 칭송에서 문을 찾음
 - 서양사상의 생명과 철학이 큰 계발을 줌. 베르그송이 대표자. 윌리엄 제임스, 듀이 모두 생명관념에서 영감을 받고 생물학의 영향을 받아 배운 바를 완성.
- > 40세 경에 1921년 초(29세경)의 사상적 변화 회고. 불교의 초세간성을 지양하고 사물과 인생의 생성을 중시하는 주역과 중용의 입세간적 세계상을 공자 사상으로 이해. + 이 전통을 명 양명학 왕심재의 태주학파가 제대로 발전시켰다고 봄. 러셀의 사상도 연관 지음. -> 범심주의적 생명철학이 현대 중국과 인류가 나아갈 길. 러셀의 윤리설. 듀이의 실천적 실험주의도 점진적 개혁론으로 바람직
- 회고에 의해 제시한 사상적 전변 세 시기
 - (1) 1913년(20세) 이전 시기
 - 학문의 가치 부인. 부친의 실용주의,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음. 유교 경전이나 문예 작품을 접하기 어려움. 당송팔대가, 노장사상, 육조 시대 현학 모두 '인간을 기만하고 오도하는 것'
 - 입헌파, 혁명파 모두에 참여, 영국 의회제지지. 메이지 유신에 호감. 1917년에는 일본 사회주의에도 관심
 - 20여 세 이후 사공학적 견해 탈피. 불경, 주역, 노장 서적을 곽인림이 개혁 사업을 위해 자신의 수양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인식. 스승으로 삼음. 답사동의 『인학(仁學)』(1899)에 매력 느낌. 최종 선택은 아님
 - (2) 20세 이후~29세 이전(1913~1921)
 - 사공파의 실리주의 유보, 내향적 출세간 사상에 관심. 번민에 빠지고 기존 사상에 강한 반동, 염세적 출세 사상, 인생 부인까지 나아감. 초세간 사상에 과도한 몰입. 불교, 인도철학에 몰입. 출가도 고려.
 -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적 삶의 변화 문제 중요함 자각
 - (3) 1921년(29세) 이후: 최종적 관점 확립
 - 초세간과 세간 다시 결합. 인생 문제와 사회문제 결합. '중국 문제에 관심 -> 향촌 자치 운동으로 실천적 해결 모색, 극단적 정적주의에 빠지지 않는음.
 - 초세간과 세간, 초월과 사회적 참여를 조화시키는 송명이학적 사고와 지행합일론으로. '공학

(孔學)은 서양의 공리주의와 과학주의에 저항하는 중국문화의 근본정신.

- 1921~1922년에 집필한 『동서문화와 철학』에 관점 반영.

•사상적 전변은 “실재적 문제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결과는 반드시 실재적 행동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라 자평. 실용주의적 언사. 문제에 따라 사고, 사고를 실천적으로 적용한다는 듀이의 개혁주의, 실험주의적 생각 반영.

- 유가 사상으로 전변한 후 ‘인류 최근의 미래는 중국문화의 부흥’이라고 생각.

- 자신의 사상적 전변과정: 1기 ‘서양적 사상’, 2기 ‘인도적 사상’ 3기 ‘중국적 사상’

- 중국적 사상에 대한 관심은 2기에도 잠재. 1917년 북경대 강의에서 서양문화 숭상, 동방문화 반대(진독수, 호적, 이대조, 고일함)에 압박의 염증 느꼈다고 회고. 그들은 동서양 상호 교류를 주장하지만, 동방문화에서 서방에 소개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판단.

- 본체와 공용을 통일하는 중국적(유가적) 사상을 기본 축으로 동서양 아우르는 독서와 생각.

•양수명 철학의 구도

- 19세기 말 중국 문제: 주권, 정치, 경제의 문제 + 사상(새로운 문화 형성)의 문제

- 문화 영역은 중국인의 정신적 자존심과 연관. 중용으로 동서양 융화와 회통 방법 제시. 1차 대전 이후 서양은 무조건 수용대상이 아님. 비판적 수용 대상. -> 전통문화 장점 재해석+서구적인 것과 조화시키는 회통적 사상으로 중국 문제 해결 기대. 5.4시기 서화파와 전통파의 양극단을 거쳐. 현대 신유가 등장. 전통사상과 서양 사상에 대한 이해 겸비. 양수명은 인도, 불교철학, 송명리학에 관심 갖고 삶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 정신적 이념 모색(안), 러시아 인민주의의 온건한 형태인 향촌 운동으로 ‘중국의 문제’ 해결 추구(박). 입세간과 출세간의 조화가 내외합일의 유가적 방향으로 구성

- 향촌운동. 농민층이 근대국가 형성의 토대. 당의 노동자 중심 정책 비판. 1959년 모택동의 관점과 주관 능동성 일정 수용. 문화중심주의, 향촌운동 이념은 유지. 향촌운동의 원형은 하심은의 공동체운동(농촌결사체 취화당).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의 계보(슈티르너→무정부주의/사회주의→러셀→양수명).

- 생명철학: 오이겐의 정신생활 원리. 베르그송, 윌리엄 제임스의 생명철학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상. 오이겐은 상실된 생활세계 회복 필요성. 생명철학은 우주를 마음의 표현으로 보는 범심주의 세계상. 왕양명의 심외무물. 태주학의 활동성과 공동체 운동과 연결. 우주는 하나의 대생명. 목적인도 초월적 원인도 없고 내재적 작용인에 의해 스스로 운동. ‘생과 활이란 자동’. 세계는 생명의 자기표현의 소상. 러셀의 사건 개념(장신부의 번역으로 인지)은 생명철학과 친화성. 사건은 시간과 공간이 결합한 시공간 연속체.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와 생명의 흐름, 자발성은 송명리학 정신과 유사. 태주학파의 자발적 활동성과 심미적 즐거움은 생명과 동조된 자유정신

- 문화적 정체성: ‘공가(孔家)’는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방성, 자발적 도덕감인 정리(情理)를 따름. 중국전통사회는 인류사에서 예외적으로 계급모순이 없는 ‘자유사회’, ‘윤리 본위 사회’->근거 없는 관념, 송명리학에 의지하는 주체성으로 근대화를 달성한다고 믿는 ‘신중체서용론’. 중국 사회를 윤리 본위 사회로 미화 → ‘마지막 유가’라는 평가.(이런 평가의 전제도 서구 중심적 관점)

- 생명철학의 흥기는 인류의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 개체 생명의 자율성과 공감의 도덕심이 사회에서 결정적 역할. 사회주의는 유가적 전통의 정의적 도덕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도덕주의.

- 자기학: 자기가 자기를 요해(了解)하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지배의 방법을 갖는 자기학. 공자와 안희의 종지. 서양 과학보다 상위 가치를 접하는 지혜. 공자 인생의 단계적 상승, 안희의 호학정신은 자기 지배의 완성. 그 후 2,000년 간 변함없는 자기학. 서양문화 실패 후 다시 부흥할 것. 오이겐의 신이상주의와 맥을 같이 함(서양문화 병리 지적). 주희는 마음이 아닌 물리 지식 추구해서 공자의 이상을 훼손.
- 농촌, 향촌 건설을 중시하지만, 혁명노선 택하지 않음. 중국적 정신문화 고양에 중국 문제의 해법. 극단적 초월은 경계(공허하기 때문) 생동하는 유동적 생명성 부여하고자 함. 정의적 공감과 이에 의거한 실천은 유가적 사고의 본질. 향촌 운동은 실천적 사고의 연장.

2. 사회주의와 향촌자치론

• 향촌건설 운동은 도시 중심 근대화의 폐단에서 농촌을 구하는 자구운동. 100년 중국농촌은 절대적으로 파괴되고 정치 실패의 절대적 희생품. 향촌은 무장자위가 필요. 토지몰수 재분배 반대, 자유 매매로 토지소유 균등과 방향 선택. 생명주의 철학과 평균지권에 의한 향촌자치 조직이 중국문제를 해결한 대안. 사적소유, 경제투쟁을 주장한 프루동의 관점 반영. 향약 주장도 마오쩌둥 비판의 빌미. 개인 본위 계급대립의 사회의 대안으로 윤리 본위 가정 중심 전통 사회

• 이상사회의 조건들

- 사유재산 정지와 창조충동: 소유충동, 사유재산은 죄악의 원천. 사유재산 문제 해결로 창조충동 해방시키는 것이 이상사회
- 생산 기술 진보와 일체성: 진보된 생산 기술은 이상사회, 계급 폐지, 사유재산 폐지의 전제. 물질적 지적 능력의 균형을 위한 조건.
- 사회주의 사회구성: 중국은 국가의 책임이 서양에 비해 약함. 사회에 기댐(親友鄉黨 윤리). 이는 사회주의 사회구성에 오히려 유리. 윤리호보→향촌자치→자치단체의 대연합사회. 모택동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다른 구상.
- 합작주의: 점진적 방법으로 경제의 사회화에 도달. 정치, 경제, 문화/교육 삼자합일. 자발성의 기초는 공감정 생명이상학. “自生自長. 개인의 생명역량에서 대생명으로 확대(생명의 확대). 손문의 지방자치 근간 정부론 발전. 개인주의도 집단주의도 아닌 합작주의. 양극단을 피하는 불교의 지혜. 러시아의 길 지양. 공산혁명이 아니라 협동주의적 향촌운동. 중국 계급 사회 부재론. 직업 분립론(혁명정 정치역량이 아닌 개량적 향촌운동으로). 윤리와 기술 중심의 향촌 합작사 운동. 비영리 경영 지향. 착취없는 산업조직

•문제해결의 동력

소수 지식인(주)과 향촌 거민居民(문명, 무학식. 賈.)->지식인 주동론. 외래에서 발생한 중국의 문제는 문화를 개량하여 재고할 수 있는 지식인이 주도. 지식인은 선지선각, 농민은 중국문제의 대상(주체 아님). 향촌 거민은 사회에 잠복하는 일대 역량(대상이라는 의미의 잠재성). 상하층 상통.

•토지분배문제

농민을 조정되고 응집된 일대 역량으로 구성하는 것이 선제조건. 우선 토지 공유화. 경자유전

과 토지의 협동적 이용부터 시작. 경자유전은 금융지원으로 구매해서 경작하는 길 제공. 합작 이용은 간척지 공동 경작. 신사층의 고정관념. 정신주의적 방향 표출

3. 오이켄의 '정신생활'과 양수명의 '직각이성'

오이켄 정신생활 원리: 자연주의 세속화대신 개인의 독립적 내면성 존중. 내면의 사상 중시. '인생철학'으로 번역되어 당시 청년들에게 호소력. 자연주의는 인간의 정신생활을 억압. 현대 문화는 내면성 부정. 현대문화는 부정되어 내면적 긍정과 자유의 길, 생명력 확산, 사회화 지향. 인간의 모든 외부적 업적도 독립적 내면성에 비하면 공허이자 커다란 모순. 무한을 생명으로 삼는 개인의 반자연주의적 독립성과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통일 주장.

내적 정신과 문화비판은 양수명의 중국 문제 구상의 기본 관점. 주체성 완성의 기초는 공가의 사상. -> 『동서문화와 철학』. 저항보다는 조화의 논리로.

오이켄과 공자

- 개인의 삼중관계(자기자신, 우주, 사회) 근대객관주의로 상실한 주체성으로 회귀하는 태도전환 요구.

- 양수명의 정신주의: 공자와 붓다는 삶의 태도를 중심과제로 정립한 사상가. 정신은 자연과의 대립이 아닌 자기,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를 대립 없는 절대로 형성. 초월과 전체성 회복으로 출세간과 세간의 종합. 이것은 유가적 정신. 오이켄의 윤리적 행동주의=공자의 자강불식. 현실과 이상의 조화 그리고 감정의 조절 추구. 공자와 중용의 정신생활. 1920년대 듀이와 러셀의 영향. 실험주의와 급진민주주의론, 윤리적 사회주의 사상도 생명철학의 일환. 동서양의 생명철학은 향외적 시선을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새로운 정신. 중국적 길이 인류의 빛으로 공헌 가능.

- 이지에서 직각으로 : 생을 찬미하는 공자의 태도가 직각. 정취와 공감적 반응 동반. 공자의 조화와 절충 정신. 지성 대신 초지성. 유가의 생기론적 전통은 문화의 제2방향의 본질적 특징(즉, 이념형). 1 방향은 자연주의이자 제국주의의 지적 배경. 중국의 길로 중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될 것. 변동불거의 정신(<->고정성 집착과 극단화)

- 親親而仁民을 고정을 부정하는 불인정의 태도 -> 유교 도덕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 중심회복이라는 보수적 관심 때문에 타자성 간과. 주역적 낙관주의가 현실 순응과 전승되었음을 간과. 종교적 초월성과 자연주의 문화를 조화시키면서 오는 어중간한 모호성과 혼동.

- '仁'과 '직각': 인과 인욕 분리(오이켄과 베르그송의 지성관과 연결)지성은 소유충동. 인은 우주적 생명의 흐름, 내면의 잠재적 본성이자 발현. '인'은 러셀의 창조충동에 속함. '인'의 공동체는 인간 생명의 창조적 활동의 표현(『공가사상사』(1923~1924)에서 상술) '인'은 태극 혹은 도의 부단한 생성능력, 마음에 내재한 본성의 발현. 생명의 자유로운 표현. 영민한 직관적 이해 혹은 직각(『동서문화와 철학』) 직각의 마비는 악의 길. 공자의 가르침은 求仁. '인'의 조건은 내적 고요의 외적 감응 포괄. 칸트 형식주의 비판의 계기. 주희의 엄혹성과 칸트의 무상명령은 상통. '인'은 내면의 마음을 중시하는 삶 <-> 외면적인 것을 관심사로 삼는 유학(호적) 도덕성은 후천적 습관만이 아님. 생기론적 사고와 개인의 내적 독립성에 바탕하 도덕적 실행의 주체성은 중국적 사고의 기풍이자 중국문화의 특징. 유럽 문화가 파괴한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문화의 본질.-> 자문화중심주의와 결합.

4. '문화방향론'과 유식학의 '감각론'

• 대동론과 3단계 문화방향론

심성론은 이상사회론과 연결. 대동은 공산사회의 방향. 사회본위의 정신을 보여준 것. 근대적 주체주의가 끝나고 이전의 인생사상은 종말. 유럽 생명철학과 결합한 공자적 생명형이상학이 경합한 새로운 시대 희망. 유가 전통이 서양보다 우월하다는 입장.

삼방향론: 서양문화, 중국문화, 인도문화.

서양문화(1방향): 의욕의 전진적 추구. 과학과 민주주의. 인생의 태도와 방향은 결여

중국문화(2방향):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여 조화를 추구하고 중요의 태도 견지. 물질적 향락도 인도 금욕사상도 없음. 자연주의 한계 극복하는 대안.

인도문화(3방향): 욕구를 후퇴적으로 추구하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자체를 취소.

생명형이상학이 송명이학을 부흥->과학주의 극복하는 중국적이자 세계적 대안

• 유식학과 현량론

- 문화 1방향은 유식학의 변계소집성(變計所執性)에 속함. 이지적 계량으로 자아와 대상을 분리. 계량적 삶은 순수 감각인 현량을 재료로 판단과 추론을 가해서 단순한 감각을 왜곡하고 왜곡된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양수명은 감각을 지식의 토대로 인정한다는 것. 원초적 감각은 개념화 이전 이식에 확실히 주어진 것. 선험적인 것. 유식학, 칼 피어슨의 감각론, 러셀의 중립일원론적 감각론을 '비판적 자연파 철학'으로 분류.

- 감각론에서 지성의 전진적 추구가 아닌 자유의 길 발견. 유식학의 현량은 지식의 원초적 기초이자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깨달음의 상관자. 현량일원론. 실체를 가정하고 실체를 지향하는 상식적 자각을 비판. 원초적 감각으로 돌아가는 철저한 경험론으로 나아감.

'세속의 감각(세간현량)' '부처 지위의 감각(불위현량)'(『인도철학개론』): 세간현량은 의타기성인 감각을 중독하는 것. 불위현량은 세간과 출세간을 두루 알고 의타기성과 원성실성 두 가지를 중극하는 것. 불위현량에서 후득지(後得智). 도출. 세간과 출세간이 독자와 공유 관계. 후득지는 사실 현량일원론.

• 유식학과 러셀 및 베르그송

러셀의 사건연속설은 고정적 실체에 반대하는 유식의 이론 증명. (유식학은 허량론과 사건존재론의 결합). 베르그송(상견에 빠져 다소 옳지 못한 것)보다 러셀이 더 유식학에 부합. 러셀의 윤리적 정치사상은 충동심리에 의거하는 '생명파 철학'에 부합. 불교와 노장사상에 유동적 사건들의 체계를 긍정하는 감각이 있고 충동적 발현과 평화의 정신이 있음. 유식학, 러셀, 베르그송은 우주와의 합일에서 최고의 개방적 도덕의 원천을 발견. 이는 새로운 형이상학. 유식학의 진정한 시대는 먼 미래의 것. 현시대에는 세간과 초세간의 통일을 생명형이상학으로 전개하는 송명이학이 필요

5. 현대과학과 철학의 변화 및 생철학

생명철학은 서양의 전지적 추구일변도 생활방식 극복 방법 보유. 이지적, 객관주의적 학문정신의 폐단 교정.

이지적 중심주의에서 중국적인 길 공자적인 길로. 직각에 따라 살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러

셀)에서 제2방향인 중국적 태도로 전환. 서양도 위인지학에서 위기지학으로 전환. 내면성의 회복이 현재의 과제. 인류문화 3단계(사람 대 물질, 사람 대 사람, 자기 대 자기) 지식보다는 감정과 의지에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동적 심리학 등장(맥두걸의 사회심리학, 충동심리학) 러셀, 베르그송은 칸트주의적 선형적 도덕론 폐기, 맥두걸도 공리주의와 칸트의 이성주의 의무론 비판. 양수명은 서양의 심리학 방법을 송명이학적 언어(활발유창活潑流暢, 타이妥妥, 화락염정과樂恬靜), ‘인’, 공자의 생활, 새로운 생활이 길. 공자의 길로 객관적 자연주의 대안 제시

•미래 문화와 삼기중현설

미래문화는 경제적 조건 개혁 이후 사상이 자율성을 발휘해서 일반화. 서양의 객관주의 이후 주관주의가 지배력을 전개하면서 모든 갈등 대립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 양수명의 관점은 비역사적(호적의 비판). 양수명은 송명이학(육왕학)을 중국적 이념의 대표로 보고 서양문화와 분리. 정신적 고양을 세계문화의 될 수 있다는 문화적 낙관주의. 먼 미래는 제국주의, 계급분열, 군벌 등 현실 문제 해결 이후 도래

•변증법적 종합

1의 길 과학과 민주 수용. 2의 길에서 봉건적 평폐 수정 후 두 길의 강점을 생철학적 세계관으로 연결, 1, 2단계가 완성되어 물질 정신 조화가 실현된 후 다가올 문제. -> 세계문화 3단계 반복출현설. 현재는 1)인도문화 초월적 태도 배척 2)서양문화 전반 수용, 근본개조 3) 중국의 원래 태도 다시 새롭게 가져와야 함.

가까운 미래의 문화는 중국문화 부흥. 공자의 중국적 길 重現. 위기에 빠진 생활세계를 생명의 자발성을 즐기는 낙천파 세계로 전환. 낙천은 미래 인생의 근본 태도. 삶의 지평을 부단히 넘어서게 하는 이상적 실재. 창조적 실재에 충실할 것을 제안. 이 충실함은 剛.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활동. 구체적으로 송명이학의 인생 태도와 과학과 민주주의 수용하는 활동.

6. ‘자각적 능동성’과 ‘자동성’

모택동 사상의 이론 실천의 역사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중국혁명이 성공적으로 안착. 계급투쟁론에 적대적이지 않음. 모택동의 능동적 영활성을 우주생명 진화가 갖는 본성을 인간의 활동에서 보여준 것. ->능동성, 영활성, 계획성을 생명철학으로 흡수. 불세비즘보다는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 성향. 주동성, 영활성, 계획성도 인심의 작용. 그보다 높은 것은 순수하고 위대하며 광명하고 공정한 덕. 놀라고 공감하는 마음, 간극을 두지 않는 마음이 공동생활의 기초 제공

공백과 자동성

공동생활의 기초는 사회주의. 인성론 기초는 장자와 송명이학의 만유상통하는 마음 생명 본체는 자유. 자유는 공백이 있기에 가능. 영활한 자유는 한정성을 부단히 부정하고 새로운 기관 창조. 공백을 통해 움직이는 자유는 ‘자각적 능동성’의 원리. 생명은 자동적, 능동적, 주동적. 사회 제도의 삶을 구성하는 새로운 원리도 자동성에 기초해야 함. 이는 당이 군중을 영도한다는 초월적 대표론과 대립하는 사상적 근거. 모택동은 인민의 자발성의 한계 인정. 양수명은 자유 지향 운동이 생활의 본체, 한정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지성은 기능이 제한된다고 흠. *양수명이 간과한 것 - 유럽의 사회주의적 소유론이 기독교의 ‘원초적 공동 소유의

원리'에서 나온 것. 양수명은 불교와 유교에만 주목하는 문화보수주의.

기계론과 목적론 비판

생명은 기계적 물질성에 저항, 부단히 분지화. 기계적 물질성은 생명이 회피한 장애들의 총체. 생명의 진화적 전진은 분지(division)화를 특징으로 함. 진화는 수렴이 아니라 분산(베르그송). 인간에 이르러 생명은 자신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고 인간은 '무한'으로 열려있는 존재가 됨. 제약에서 벗어남.

7. 동서학술의 분화와 '회통'

- 개체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은 자각적 능동성의 실현. 자각성의 향향은 향외와 향내. 서양은 향외, 도가 유가 불교는 향내. 동서구분이 초기에는 없다가 점차 차이가 형성, 임시방편으로 고금동서 대조 언급. 금후 학술 발전은 회통과 합병. 3기 학술은 회통. 심리학, 사회과학, 생철학, 신유가의 자유 사상 결합함. 80세까지 고금동서 학술에 대한 관심 지속(『인심과 인생』 1984).
- 생명의 본성은 유동성을 갖고 이는 발전 가능성을 갖는다. 생명은 환경에 적응하는 活變性과 극대의 可塑性을 지니므로 우주적 개방성으로 향한다. 기존의 예측제도는 개방성을 방해. 사유제 극복 가능성을 믿는 유물사관의 관점에서 중국의 미래 낙관.
- 진정한 이상사회: 생활 규칙과 사회질서가 오직 이성과 지성에 의지해서 건립. 미래의 공산사회. 사회는 있지만, 국가는 없음. 인심의 자각적 자율성 고도로 발전. 심리학적 사실과 도덕적 이상이 합치. 윤리 본위의 중국 전통문화가 있기에 중국은 공산사회로 발전할 수 있음. 해방 과정을 극한으로 발전시킨 것은 불교. 도덕은 생명의 표현. 자유를 위한 생명의 노력은 인간을 통해 세계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인간 자신에 의해 사라지는 궁극적 자유의 완성으로 진화.

8. 러셀의 권고와 '중국의 길'

• 러셀의 『중국의 문제』

- 공업 문명 발전시키되 개인주의 폐단 회피를 위해 내심 지혜와 조화 필수. 주관적 윤리관, 윤리적 사회주의->점진적 개혁론.
- 『중국: 이성의 나라』(1969)에서 러셀 언급. 사회주의 혁명의 도덕적 조건 논함. 동서 결합론을 새로운 문화의 방향으로 소개. 서양 과학기술과 중국의 품덕 결합. 과학과 민주주의(서양), 윤리사회에서의 정의 논리(중국) 이상사회는 마르크스주의보다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적 사회주의와 친화성.

• 자발성과 자각성

자발성은 사물의 자연적 발전. 자발성만으로는 제도 개조의 활동을 담보할 수 없다. 자각적 능동성으로서의 주체성이 필요. 자각은 윤리의식을 확대하고 역사적 전망과 그 작동 기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 사회주의의 추동력은 마음에 있다. 즉 생명이 마음으로 표현된 것이 사회주의. 자발로부터 자각으로 발전하는 것은 신체로부터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 자산계급 민주혁명으로부터 무산계급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 혁명 관념 수용하면서 윤리본위

사회라는 추상적 관점을 느슨하게 유지. 고대 유가 이성의 발로는 상층의 경제적 利에 관한 유가의 비판. 정치적 권력에 대한 도덕적 제약. 사회적 노선은 비폭력 개량주의. 민주동맹 선언문(1940-1941)에도 반영. 자발성을 자각성을 발전시킨, '사회 전체의 의지'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표출되는 실천이 모택동의 폭력성과 무단적 독재 가능성을 제어하는 유일한 대안.

•민주와 사회주의의 상휴병진론

민주국가 안에서 향토 민중의 자기조직화 운동으로 모든 공적 기구의 사회화를 성취할 수 있다. 무력 노선은 또 다른 무력을 낳아 끊임없는 분열 낳을 것.

건국방략 제시. 1)중국 내부 영구 통일, 2) 전 인민 의지 중앙으로 집중. 인민 의지 대표하는 회의기구 구성. 모택동은 3단계 혁명론(민주->사회주의->공산주의) 양수명은 개량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한 1단계 혁명론(정치상 민주화와 경제상 사회화는 서로 추동하고 제휴하며 전진하는 상휴병진하는 관계)

모택동은 양수명이 전통 역사의 특수성을 과장해서 일반성을 모른다고 지적. 양수명은 추상적 이념형 모색. 추후 자기비판. 만년에도 문화중심주의는 불변. 1973년 비림비공운동에서 송명 이학과 공자의 의의 변함없이 강조.

양수명은 마르크스주의의 반대자. 철저한 반대는 아님. 인간의 의식이 생산양식에 의해 규정됨은 인정, 문화의 근본 형식이 사회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문화 결정론의 입장. 문화적 이념형을 창조하는 정신이 그 사회의 특징을 규정. 근거에는 생명철학과 문화중심주의

• 논평

윤리 본위 이념형은 중국의 가정 본위에 대한 비판을 간과. 가문 중심 문화를 사회의 기초로 보는 진부한 관념 보유(예시: 가정이 만약의 근원이라는 웅십력의 비판)

중국문화를 세계의 주심에 두려는 의도에서 가정 본위의 폐단 간과. 웅십력의 비판은 양수명의 사고가 봉건 유습에 갇혀있고 자기 존대적 보수성을 지녔음을 지적.

중국적인 것을 미래적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철저한 자기비판을 통해 단련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함